

# - 제 1 강 -

## 전통신학의 재해석 “전통신학의 위기와 그 행로”

김 희 현 박사  
성공회대 연구교수/인문학밴드 ‘대구와카레’ 회원

### 1. 전통신학의 위기와 기독교 신학의 출발점

- 전통신학과 교회의 위기 상황
- 전통신학의 주요 문제점 : 종교적 통찰력의 상실 + 신앙에서 이탈한 삶
  - 악의 문제 (신정론), 기적신앙, 이중적인 삶과 파편화된 지성
- 전통신학이란 무엇인가?
  - ‘전통’ 또는 ‘정통’ 신학이란? the tradition? traditions (80개의 복음서, 수많은 교파)
  - 전통신학의 재해석의 과제 : 힘의 철학에서 풀려난 종교성 형성
- 기독교 신앙의 출발지점 : 하나님의 힘(power, 전능)에 관한 묵상.
  - 성서의 증언 (막 15장) :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 대한 두 가지 태도
  - 종교의 존재방식 : ‘신의 힘(전능)’에 관한 이해방식 = 신학적 사유/해석의 출발점 (A. N. Whitehead)
- 힘의 철학에 중독된 교회와 기독교 신학 vs. 성서의 하나님, 전능한 신?
  - 엘 샤다이 : Shaddai (히브리어) → cosmocrator (헬라어) → omnipotens (라틴어) → Almighty (영어) → 전능자
  - 샤다이에 대한 해석 : ① 아랍어 shadid : 강하다, ② 악카드어 shadu : 산(山), ③ 히브리어 shad/shadayim : 어머니의 가슴(breast) + 히브리어 dai : 부여주다, 유익함을 주다. (엘 샤다이 : 가슴으로 기르시는 하나님)
- 힘의 철학에서 풀려난 신학이 필요. 하나님의 힘(존재방식)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.
  - M. Borg의 신앙여정 : 초자연적인 존재 → 모든 것을 감싸는 영
- 기독교 신학이 시작되는 곳 : 접선장소에 있는 관계성(힘의 교류방식) 해명.

- 성경의 권위, 전통과 교리, 종교적 경험에서 해석의 핵심과제
- 기독교 세계관 형성을 위한 근본 과제 : 힘의 철학으로부터의 해방
  - 기독교적 신앙 형성을 위한 주안점 : 하나님의 힘(전능)의 특징을 밝히는 것. 사랑의 힘인가, 정복의 힘인가? 관계적 힘인가, 일방적 힘인가? 설득적 힘인가, 억압적 힘인가? 지속적 힘인가, 간헐적 힘인가?

## 2. 근대 기독교 전통신학의 몰락 경위와 그 이유

- 근대 사상, 힘의 철학에 기초한 기독교 세계관의 파멸 사례
- 16세기, 종교개혁 신학 : 하나님의 주권(힘)에 대한 강조. 종교개혁신학과 기계론적 철학의 친근성 :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→ 피동적 세계 (기계론적 세계관)
- 17세기, 이원론적 철학과 기계론적 과학의 정착 : 전장에서 형성된 Descartes 철학의 이원론, Newton의 과학 : 기계론적/법칙적 세계관을 낳은 유신론적 사유.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 창조주를 증언하려는 신학적 열정.
- 18세기, 이신론의 시대
  - 이신론적 사유가 낳은 아이러니 : 전지전능한 창조주에 대한 믿음 → 법칙대로 움직이는 세계 → 섭리하지 않는 신 → 이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신 → 무신론적 사유습관 (기적에 대한 교설은 종교적 정서를 만족시키려는 사상의 파편화)
- 19세기, 전지전능한 힘의 신의 죽음. 무신론의 시대의 도래, 근대 기독교 사상의 파산
  - 유신론적 종교와 무신론적 철학/과학이 서로 대립하는 이유? 동일한 신론(전지전능한 신 관념)에 기초. “무신론은 그것이 없애고자 하는 유신론의 형태에 의존하며, 그 형태의 거울상이 됨” (K. Armstrong)
  - 근대신학의 한계 : 로고스(이성)와 뮈토스(신비)가 분리된 세계의 편협한 종교성.
    - ① 모름(신비)에서 오는 묵상의 즐거움은 확실성에 대한 욕망과 교조적 편협함으로 대체, ② 신앙(faith)은 ‘교리적 믿음(beliefs)’과 동일시 됨.

## 3. 기독교 신학의 선택과 행로

- 19세기 이후 기독교 신학의 선택 : 자유주의 신학의 실패 이후, 근본주의 신학과 신정통주의로 분화. 양자 모두 전통신학이란 이름으로 이신론적 세계관의 유지. 계시신학 일변도 (유신론 철학의 부재)

- 20세기, 새로운 신학적 가능성 : 과학의 재발견, 신학의 고백과 반성
  - 1970년대 이후 기독교 신학의 두 행로 : 명쾌한 신학계열과 통쾌한 신학계열.
- 21세기 기독교 신학의 요청과 방향 : ① 유기체적 세계관 ② 해방적 실천 신앙 ③ 직관적/생태적/신비적 영성 ④ 다원적 생명망을 짜 가는 신앙공동체로서의 교회
- 전통과 정체성 : 전통(tradition)이란 새롭게 창조되어 가는 정체성
  - 기독교적 정체성의 두 구성요소 : 믿음 + 모험 (모험하는 신앙)
- 1) 지적 모험 : 성육신의 세계에 대한 바른 이해. 성육신의 세계(끊임없이 화육/창조하는 하나님)를 아는 작업은 전통교리의 총합보다 크다.
- 2) 영적 모험 : 그리스도를 따름, 수난의 친교
  - 지배 논리 (억압자가 된 기독교) + 피지배의 공포 ('공포의 주민들'로 구성된 교회)
  - 가이사의 종으로 전락한 한국교회 vs. "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!" (막 12:17)